

082822 주일설교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인” 누가복음(Luke) 14:7-14

한번은 EBS교육방송에서 유익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Howard Gardner, multiple intelligences)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만해도 IQ 즉 지능지수로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을 넘어서 인생 자체가 평가되기도 했죠. IQ는 수리능력과 언어능력을 측정하고 합산해서 정신연령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신체연령에 비해 정신연령이 얼마나 높은지를 %로 나타냅니다. 100이 평균(중앙값)인데, 130이 넘어가는 사람부터가 상위 2%로 소위 영재교육의 대상으로 분류되곤 하지요. 참고로 IQ만으로 천재라고 불리려면 적어도 171.3 이 되어한다고 하는데, 이는 대략 100만명 중에 한명 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EQ가 또 한참 이슈가 되었습니다. EQ는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해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기준입니다. 머리가 똑똑하긴한데,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 골먼이라는 심리학 박사는 사회에서의 성공에 IQ는 20%내외의 영향을 미칠 뿐이고, 나머지 80%는 EQ의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어 지능이나 논리수학 지능만이 영향을 주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지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다른 지능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처음에는 7개의 영역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9개의 지능으로 세분화했는데요, 모든 사람은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9개의 지능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1.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말이나 글을 통해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 2.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IQ가 여기에 대부분 해당. 3.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음악뿐만 아니라 소리랑 관련된 모든 사항에 남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지능. 4.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이 능력은 스포츠와 같이 격렬한 운동 외에도 균형, 민첩성, 손의 섬세한 움직임, 표현력을 모두 포함. 5.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공간, 시각적인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한 파악능력이 뛰어나 경우. 6.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파악하는 능력.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 7.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자기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 이 경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이해해서 그에 기초하여 잘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 8.자연친화지능(Naturalist Intelligence)-생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루는 능력. 동물이나 식물을 잘 키우는 경우가 많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능력이 뛰어나. 9.실존적지능(Existential Intelligence)-인간의 본성 등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 EBS 프로그램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각분야에서 성공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데요. 그랬더니 성공한 인물들은 9가지 지능 중에서 보통 2-3가지씩 아주 강한 지능을 보여 주었는데, 거기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7번 “자기성찰지능”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어떤 이가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더라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능력이 부족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런데, 이 결론은 신앙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23).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보통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보기 보다는 남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재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게 아니잖아

요. 객관화에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얼마나 자주 자신을 돌아 보라구요?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예요! 날마다!! 정말 중요한 얘기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7절로 11절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죠. 혼인 잔치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겸손하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한 12절로 14절은 이번에는 여러분이 남들을 초대할 때를 말해요.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부자들만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 맹인들을 초대하라는 말씀이에요. 포인트가 무엇이나면, 굶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섬겨주면 그들은 굶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굶아 주실 것이고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받을게 있을 때 주는게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굶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하시는거죠! 이 두가지 말씀 모두 결국 하나님을 염두해 두고 겸손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걸까요?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걸까요? 자기를 높인다는 건, 사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의 표현으로는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이나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가장 큰 죄가 2가지가 나오는데, 첫번째는 우상숭배고 둘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성경에서 찾아 들어가 보면, 재밌는 것이 발견되는데, 거품이라는 뜻이 교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소다캔을 막 따서 컵에 따르면, 거품이 반이고 음료가 반인 것처럼요! 바람 한번 훑! 불거나 조금만 기다리면 대단한 양인 줄 알았던 것이 실재론 반 밖에 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과 사람들 앞에 대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도, 바람 한번 훑! 불어서 어려

움이 닥치면, 우리의 본래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참 멋지게 살았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도 참 많이 했다... 사람들이 나처럼만 교회생활 하면 좋을텐데...’라며 선줄로 여길 때, 우리 모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된 것은 자기가 잘해서이고, 나쁜 것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생각해요.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보다 자신과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삶을 평가할 때 더 관대하고, 자신과 연관된 장소, 물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연관된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해요. 한국정서에서, 혈연, 지연, 학연... 물론 특별한 반당으로 서로 잘 챙겨주고 하는 것 좋죠!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맹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또는 자기와 관련된 것을 더 좋게 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선입관이나 편견에서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도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나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위로하며 살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하면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에게는 나랑은 당연히! 상관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는데, 원래 바리새인이란 ‘구별된 자’ 라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방인들은 물론, 세속적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11-12,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9.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남들보다 몇가지 하나님 앞에 잘할 순 있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음을 망각해서 자기는

이미 의롭다고 믿는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바리새인은 우리랑 상관없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길 포기하는 것이죠.

예화: 모래처럼...

모래는 모래 이상이다. 모래는 돌 중에서도 가장 작지만,
쓰임새에 있어선 큰 돌이 이에 못 따르고 큰 바위가 이에 못 미친다.
모래의 쓰임새는 다른 유사한 것들에 비하면 절대적이다.
그러면 모래는 왜 것처럼 쓰임새가 많은 것일까?

이유는 쪼개졌기 때문이며 낮아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작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모래처럼 한번 쪼개져 보자.
모래처럼 한번 낮아져 보자.
모래처럼 한번 작아져 보자.
왜 쓰임을 받지 못하는가?

바위처럼 커져서 부귀명예 허무를 얻느니
모래처럼 생존하며 하늘나라의 도구가 되어 보자.

*짧지만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시계를 떠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시계 속의 모래는 자꾸만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위로! 들어 올려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죄 사함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바람 앞에서 늘 넘어져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라나시길 축복합니다.